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0호 현대불교  
2010년 6월 30일(음 5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그대로 참선!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마음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한 4년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남을 떠먹여 주지는 못할망정 제 스스로는 떠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나름대로 공부해 온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공부해 나가는데 지침으로 삼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첫째, 이 마음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이나 약을 찾지 않았습니

다. 주인공 자리에 맡겨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찾지 않았습니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겠습니

다. 다 한두 가지씩은 공부의 재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병원에 다니고 했습니

다. 이 공부한 후로는 계속 제 나름대로는 관(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태가 심할 때는 정말로 저를 성가시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이 내가 주인공 반야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갈 게 아니냐, 이러한 가르침으로 알고 저 나름대로 놓고 갑니다. 가끔 '과연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까지가 약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좀 심할 때는 소금물이라도 좀 써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까지도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에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하기 전에는 그 상태가 좀 심할 때 술 먹을 일이 있고 그러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술 먹기가 좀 꺼려졌는데, 이 공부 한 이후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술 먹을 인연이 다가와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이 안 먹게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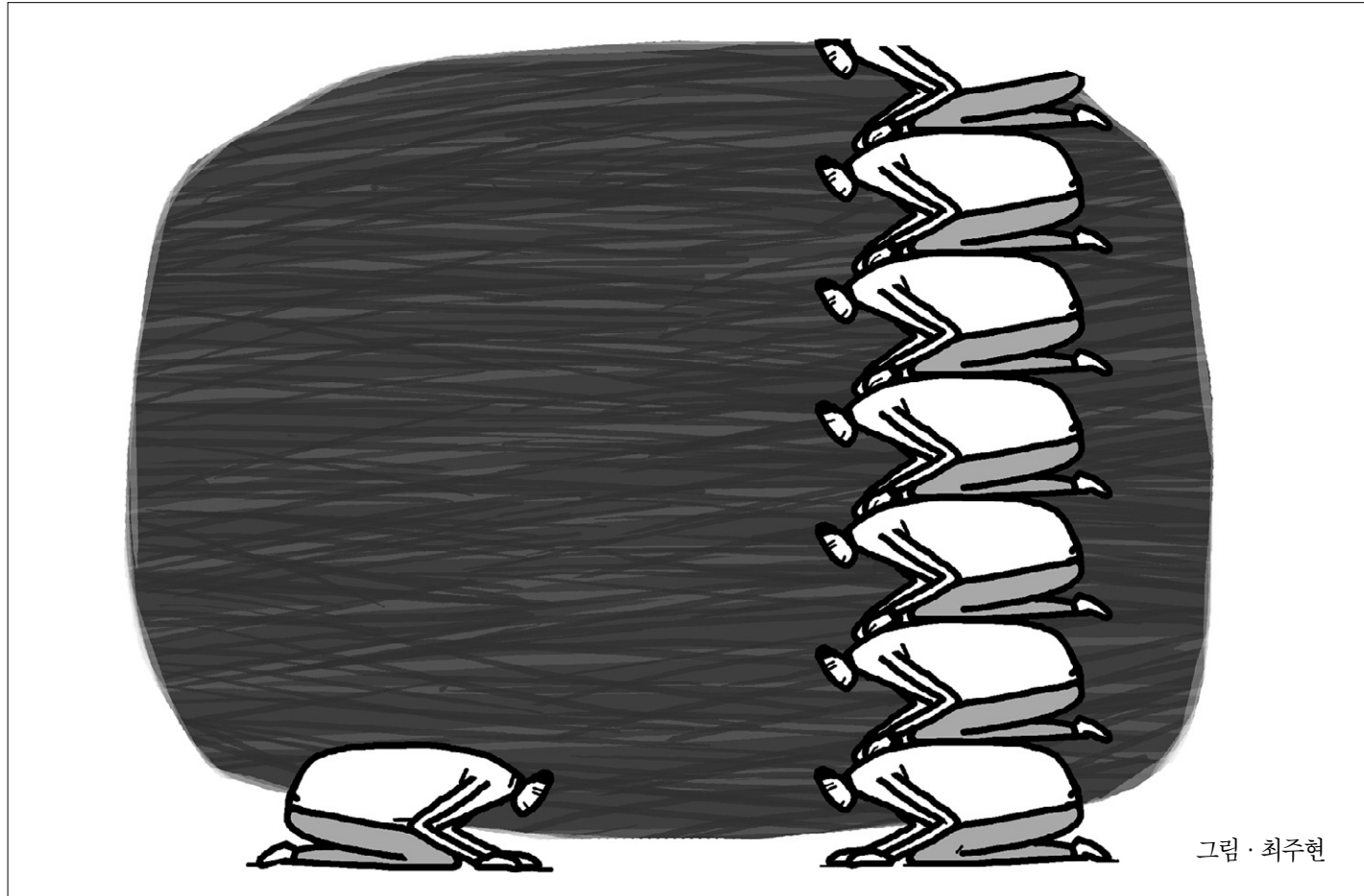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리고 몸에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혹시나 어떤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야 되고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건강 문제를 다 맡겼다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귀찮아 들리지 않고 건강 문제를 다 맡겼다면 다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일부러 제가 뭘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몸이 불어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 맡겼으니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나왔습니

**큰스님:** 사람이 살아가려면 천차만별의 운도를 다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는 중에 번연히 알면서도 '내가 진짜 있다면 나와 봐.' 하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픈 것도..., 약이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정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니까요. 여기에 꼭 소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성(自性)의 법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다

가 조금 한 움큼 넣어서는 목욕을 좀 해 보세요, 그냥, 아, 그래도 좋고...

그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어떤 신도가 배가 아파서 그냥 팔짝팔짝 뛰고 야단법석이 났는데, "스님, 스님! 어떡할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으,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좀 타서 먹고, 따뜻한 소금물로 배에 찜질을 좀 해 줘." 그랬습니

다. 행편이 어려운 집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볼 때는 그냥 잘못돼도 이만 저만 잘못된 게 아니죠. 대장이 꼬였는데 그러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외려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해 보고 대장이 꼬였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겁니다. 아,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냥 그

럭하고 나왔어요. 나온 뒤에, 병원 진찰비를 갚지 못해서 나중에 그걸 갖다 주려고 가니까 "당신 어느 병원으로 갔었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 "이 사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군." 그러더라고요. 하하하... 아니, 그거는 대변에 찍어서 죽지 그게 그냥 있을 거냐고 아, 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하는 소리가 "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나왔으니 다행이죠, 뭐." 그러니까 "그렇긴 그렇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허허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법이다', '저것이 진짜 법이다' 이런 게 없이 내가 '이러하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 때 그게 진짜 법이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 금방 맹장염이 발생했다 그럴 때 그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거기다가 손발을 찜질을 해 주고서 그걸 한 종지 먹여 주면 어때요? 그것도 아주 대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천부당만부당하거든요. 그렇게 대처를 안 해서 염증이 심해지고 문제가 복잡적으로 돼서 풀이 터지면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대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가정생활을 하는 데 아주 도움되는 상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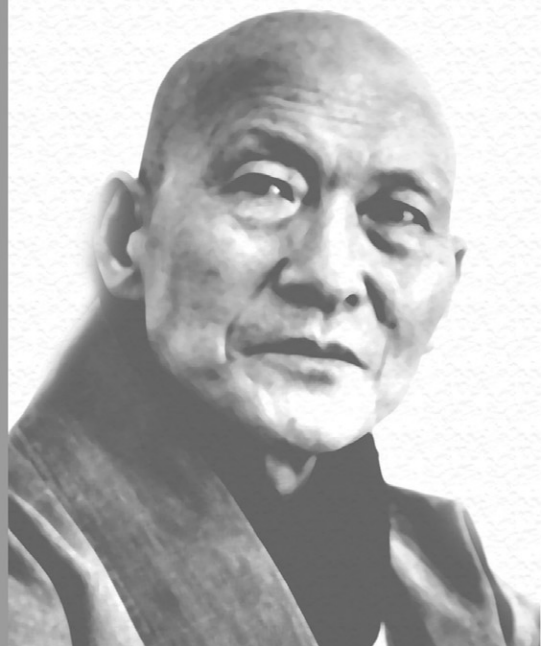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의식적으로 그러질 말고요, '이것도 그놈의 법이고, 그것도 그놈의 법이고, 저것도 그놈의 법이니 그놈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안에서 모두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겠지.' 하곤 그냥 보세요. 그래서 그놈들이 알아들으면 '허, 아무리 해도 저놈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냥 해 주자.' 이라고 그냥 할 겁니다. 아, 허허하...

6·25 때 당해 보신 분들이 여기서 계시는 거예요. 6·25 때 의사가 있었습니까, 병원이 있었습니까? 아주 풍당 다 없을 때에 급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갔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행구가 나서 뭐 어떻게 된다 한다면 컴퓨터를 지고 다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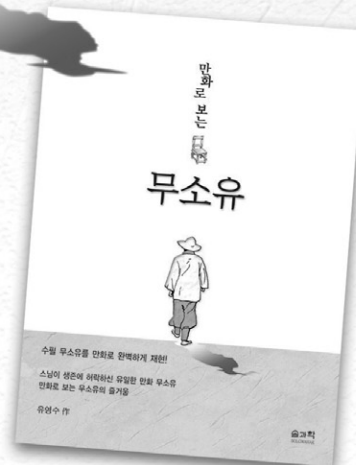
26면으로 계속

##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는 무소유!

법정스님께서 생존에 허락하신 국내 유일의 만화. 소유와 집착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법정 스님이 전하는 깨우침의 이야기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만화로 완벽하게 재현한 만화 『무소유』



192p / 국판 / 율컬러 / 10,000원

제주 돌가마도에연구소 오창운 작가의 살아 숨쉬는 도예의 세계



제주 흙의 재발견 '숨' 180p / 국판 / 율컬러 / 11,000원  
제주 문화 제주 중기 168p / 국판 / 율컬러 / 11,000원

## 만화로 보는 대통령 풍수이야기 명당 풍수

대권을 얻는 것은 하늘과 땅의 힘을 받아야 한다. 왕이 나온다는 제왕지지를 찾아 조상을 모시고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지던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쉽게 풀어서 만화로 보는 명당풍수 이야기



1.대원군 2.박정희 3.전두환 / 신국판 / 각권 10,000원